



2005년. . 벤처. . 재도약을. . 위한. . .. 실질적. . 지원책. . 마련. .

협회와 전자신문사가 공동 주최하는 ‘제11차 벤처CEO포럼’이 지난 23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중소기업청 김성진 청장은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 부연설명을 하였고, 한양대 한정화 교수는 ‘벤처 생태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 후 삼성경제연구소 강원 연구원, 중앙일보 홍승일 차장, 협회 장흥순 회장은 벤처지원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벌였다. 다음은 ‘2005년 벤처 재도약을 위한 벤처 생태계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정리한 글이다.

주제발표 : 중소기업청 김성진 청장, 한양대학교 한정화 교수

사 회 : 서울시립대 이춘우 교수 | 패 널 : 삼성경제연구소 강원 박사, 중앙일보 홍승일 차장, 협회 장흥순 회장



중소기업청 김성진 청장



한양대학교 한정화 교수

활성화 대책과 생태계 조성이 벤처재도약의 핵심

김성진 청장(중소기업청) 민간의 벤처투자 유치 확대의 일환으로 산업은행과 민간이 2000억원 규모의 공동 펀드를 조성할 것이다. 이 펀드는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해 집중 투자하게 될 것이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창업·벤처보증 전담기관으로 2005년부터 3년간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실시하고, 기업은행은 2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전용 사모펀드(PEF)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방안으로 개인투자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15%를 소득 공제하는 한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실패한 벤처사업가의 패자부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보증을 받아 실패한 경우에도 벤처기업협회가 1차로 도덕성을 평가하고 보증기관이 기술과 사업타당성을 평가해 신규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간 건의해 온 벤처기업들의 많은 요구를 모두 들어주지 못하는 점은 미안하지만 정부가 벤처지원에 적극적인 만큼 벤처기업인들이 더욱 분발해 주길 바란다.

한정화 교수(한양대학교) 국내 벤처산업이 성공하는데 벤처캐피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벤처산업의 성공 여부는 지식과 인내심, 깨끗함을 갖춘 캐피털이 좌우할 것이다.

지금 한국벤처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건전한 캐피털을 육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벤처의 재도약기를 맞은 현시점에서 캐피털이 구조조정 기능을 맡아 공급과잉으로 초래될 공동의 비극을 막아야 할 것이다.

또, 코스닥이나 벤처 캐피털을 이용한 자금 동원과 혁신 제품에 대한 구매시장 기능을 정부와 대기업이 맡는 것이 한국 벤처산업의 이상적 모형이다.

또, 대부분의 벤처사업 실패는 기업가들의 의욕과 역량 차이로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아이디에만 믿고 뛰어들어 실패하였다. 이것이 바로 의욕과 역량 사이의 갭이다.

즉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고, 가급적 이런 역할을 대학 등 정규 교육과정에서 소화하게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실패의 자산화로 책임 다하는 벤처로 거듭나야

강원 박사(삼성경제연구소) 벤처 재도약을 위한 벤처 생태계의 이상적인 모습은 은행과 금융기관 중심이 아닌 벤처기업인 중심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 벤처기업 중심의 생태계에서 서로가 벤처마킹을 통해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또 생태계 안에서 견제와 협력을 통한 CEO교육과 육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후배 벤처인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사례를 차곡차곡 내화해 노하우로 남기는 실패의 DB화가 필요하다.

홍승일 차장(중앙일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정책의 성패는 여론에 의해 좌우된다. 지난 벤처 버블의 붕괴를 지나면서 언론 역시 좋은 실패의 경험을 학습하였다. 정부 또한 실패한 정책제안이나 이름만 바꾼 정책 등으로 국민적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되겠다.

진정한 의미의 벤처를 골라내는 작업과 모범이 되는 리딩벤처기업들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이끌어 내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기 위해서 실패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장흥순 회장(협회) 벤처 업계가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개별 기업들이 윤리경영, 투명경영, 신뢰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범업계 차원의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개별 벤처기업들이 투자자 이익확대, 고용 창출 등 기업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활동을 다하는 기업,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 중에 있다.



서울시립대 이준우 교수



삼성경제연구소 강원 박사



중앙일보 홍승일 차장



협회 장흥순 회장